주식시장 리뷰와 미 증시 전망

2022.6.16

코스피, FOMC 불확실성 해소에도 경기 침체 경계감에 상승 제한

김석환 seokhwan.kim@ miraeasset.com 박수진 soojin.park.a@ miraeasset.com

한국 증시 장중 리뷰: 코스피, FOMC 불확실성 해소되며 상승. 다만, 경기 침체 경계감은 상존

- 한국 증시는 FOMC 불확실성 해소되며 상승. 6월 FOMC에서 예상치에 부합한 75bp 금리 인상을 발표. 외국인이 10거래일만에 매수세를 나타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 반등하면서 상승. 다만 시간외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서 미국 지수선물 하락 영향으로 국내 지수 상승분도 일부 축소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2차전지 대표주 강세.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해소로 미 증시 테슬라 반등.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설비 투자와 삼성SDI의 실적 기대감 등에 관련주 전반 강세
- 달러/원 환율도 소폭 하락. 장중 10원 이상 하락하며 1270원대도 기록했지만 지수 상승 제한과 달러 강세 유지에 따라 원화 강세폭 축소

아시아 증시 장중 리뷰 중국 증시,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혼조세

- 중국 주요 지수 혼조세. 전체 지수 상승 출발 이후 전일 급등했던 금융, 에너지 업종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상해종합지수 하락 전환. 통신, 전자, 2차전지 등 기술주 강세에 심천지수는 상승세 유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강세 지속. 위안화 강세에 따라 외국인 매수세 유입

- 홍콩 주요 지수 하락. 미 연준 금리인상에 따라 홍콩도 기준 금리 75bp인상 발표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확대. 교육주 전반 급등. 작년 사교육 규제로 인해 정규 교육 관련 교육사업 모델은 타격이 있지만, 라이브커머스, 직업교육 등으로의 사업 전환에 대한 기대감 확대. 다만 중국 교육주의 규모와 펀더멘털 대비 주가 급등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

미 증시 전망 수요 둔화는 확인, 기대인플레이션은?

- 0%까지 하락한 2분기 경제성장률: 6월 들어 가장 중요한 하루(15일)가 마무리 됐고 이제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만 남아. 당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시장은 반등했지만 또 다른 불확실성은 계속 찾아올 것

어제 발표된 5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하락. 자동차 판매 감소 영향이 큰 탓도 있지만 전반적인 소비둔화 움직임은 향후 경기둔화를 넘어선 '침체'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 실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024년 1분기까지 경기침체 확률이 72%에 달한다고 봐. 반면 파월 의장은 재차 "미국 경제가 강한 위치에 있고 더 높은 금리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연착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월가의 상당 수는 의문을 제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했던 '제로금리(0~0.25%)'를 지난 3월 25bp, 5월 50bp 인상하며 연준이 바랬던 수요 둔화의 모습은 여러 데이터에서 점차 나타나고 있어. 특히 이번 회의에서 50bp 인상이 기본이었으나 갑작스럽게 75bp 인상으로 선회한 이유는 '기대인플레이션의 급등' 영향 때문. 지난 금요일(10일)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조사에서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5.4%로 198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 월요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6.6%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

이미 여러 데이터에서 수요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번 75bp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향후 더 가파른 수요 둔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럼에도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에너지, 식품 등 가격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 이는 수요측 요인 영향보다 공급측 요인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연준의 권한 밖이라고 볼 수 있어

- BOE통화정책회의, 주택선행지표: 영국 중앙은행(BOE)는 금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3년래 최고치인 1.25%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전망. 일부 위원들은 50bp 인상을 주장하지만 BOE가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인플레이션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여지가 있어. 다만 에너지 가격과 세금 등이 영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만큼 빠르게 경기가 냉각되는 점에 우려. 파운드화는 연초이후 달러대비 10%이상 하락

  전일 발표된 6월 NAHB(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는 2년래 최저인 67(예상 68, 전월 69) 기록. 미국 주택 건설업자들의 심리가 6개월 연속 악화되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경제 환경에서 주택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해석. 금일 장 전에는 주택시장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택착공건수와 건축허가건수가 발표될 예정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